



‘바로 저기 할머니 집이 보여.’

앞장 선 나를 막는 닭들. 쫓다.
장닭이란다.



고모,삼촌보다
먼저 달려 나온 강아지.

오늘 새 친구를 만났어.



‘아, 백숙이다! 아까 그 장닭은 아니겠지?’

“고모, 개는 밥 줘?”

“아니, 개는 하루 두 끼만 줘.”



입에 가득 고기를 넣고
화장실에 가는 척 나온다.
‘아무도 모르겠지’
내 친구에게 닭고기를 준다.
강아지도 점심은 먹어야 산다.
그걸 큰고모는 모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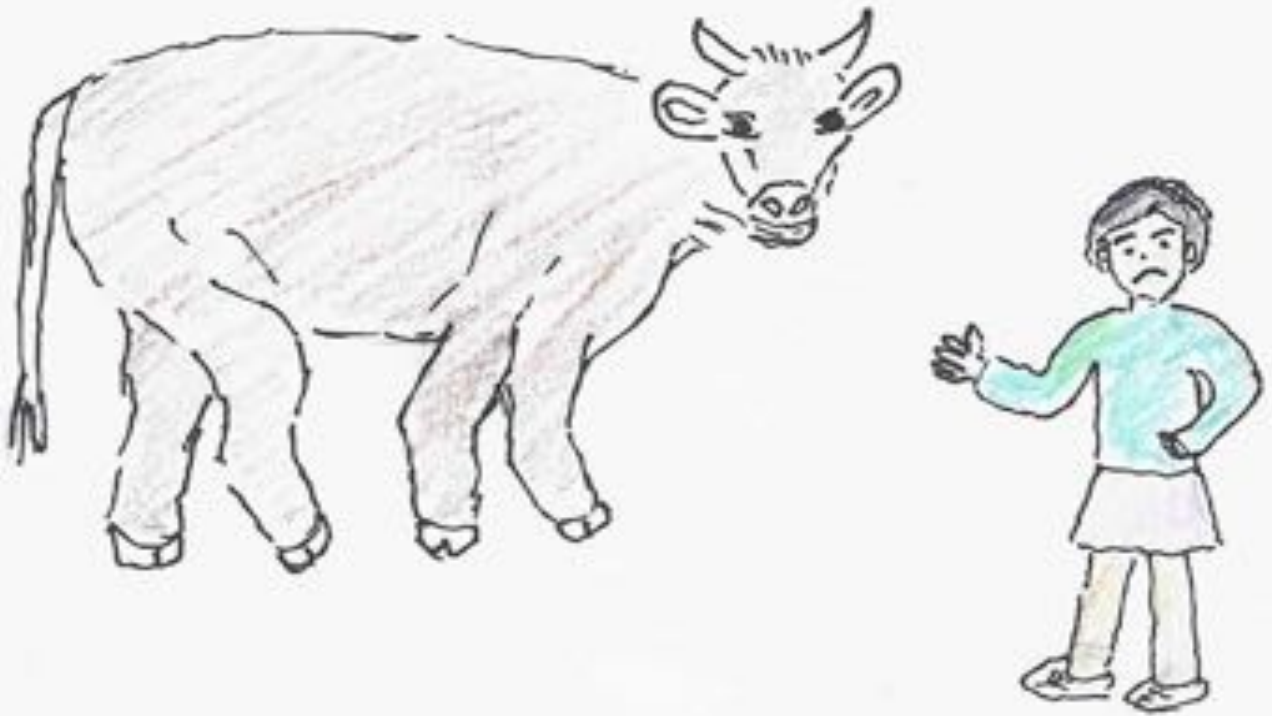
졸음이 오는 한낮.

모두

일하러 갔다.

집에는 황소와 나뽀!

강아지도 일하러 갔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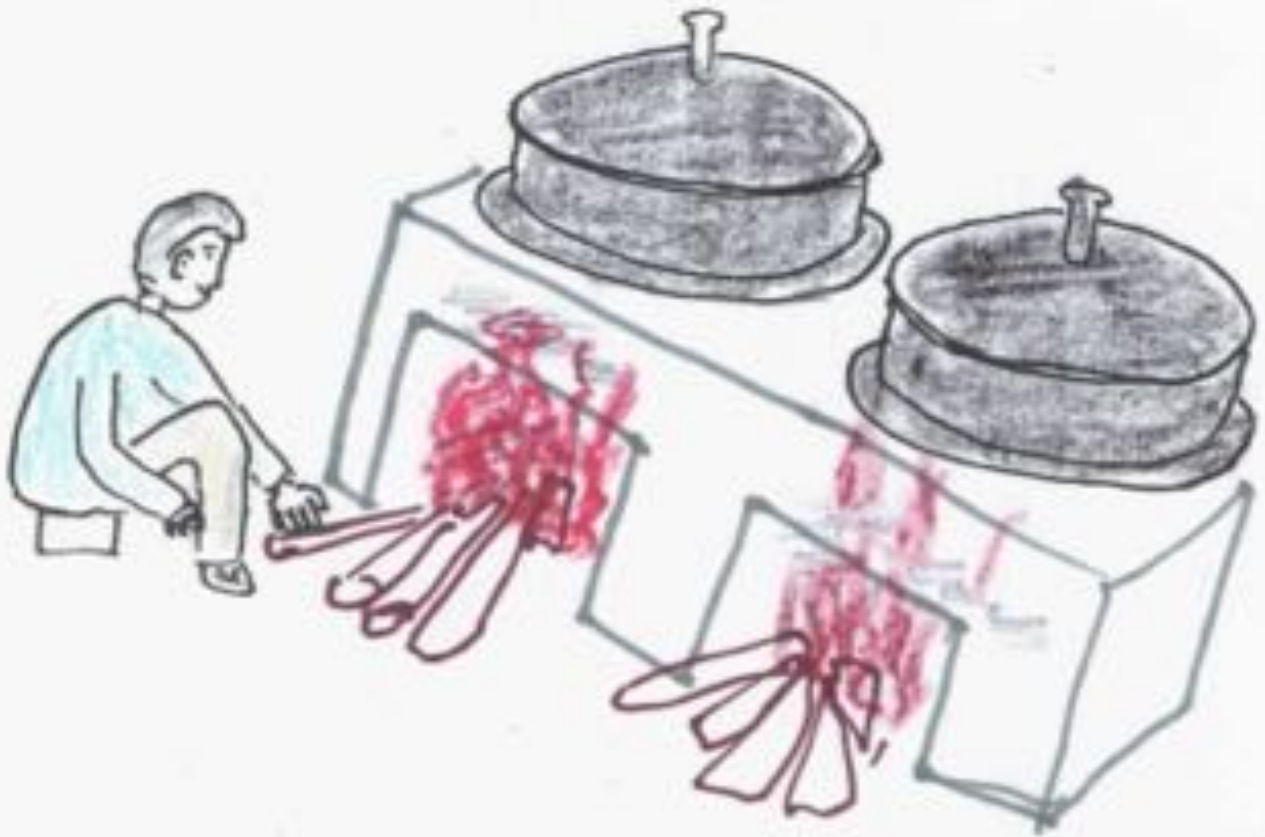


아뿔사, 소가 외양간 밖으로 나온다.
앞에 섰는데 큰 눈만 빼꼼,
소는 나보다 엄청 크다.
게다가 뿔까지 달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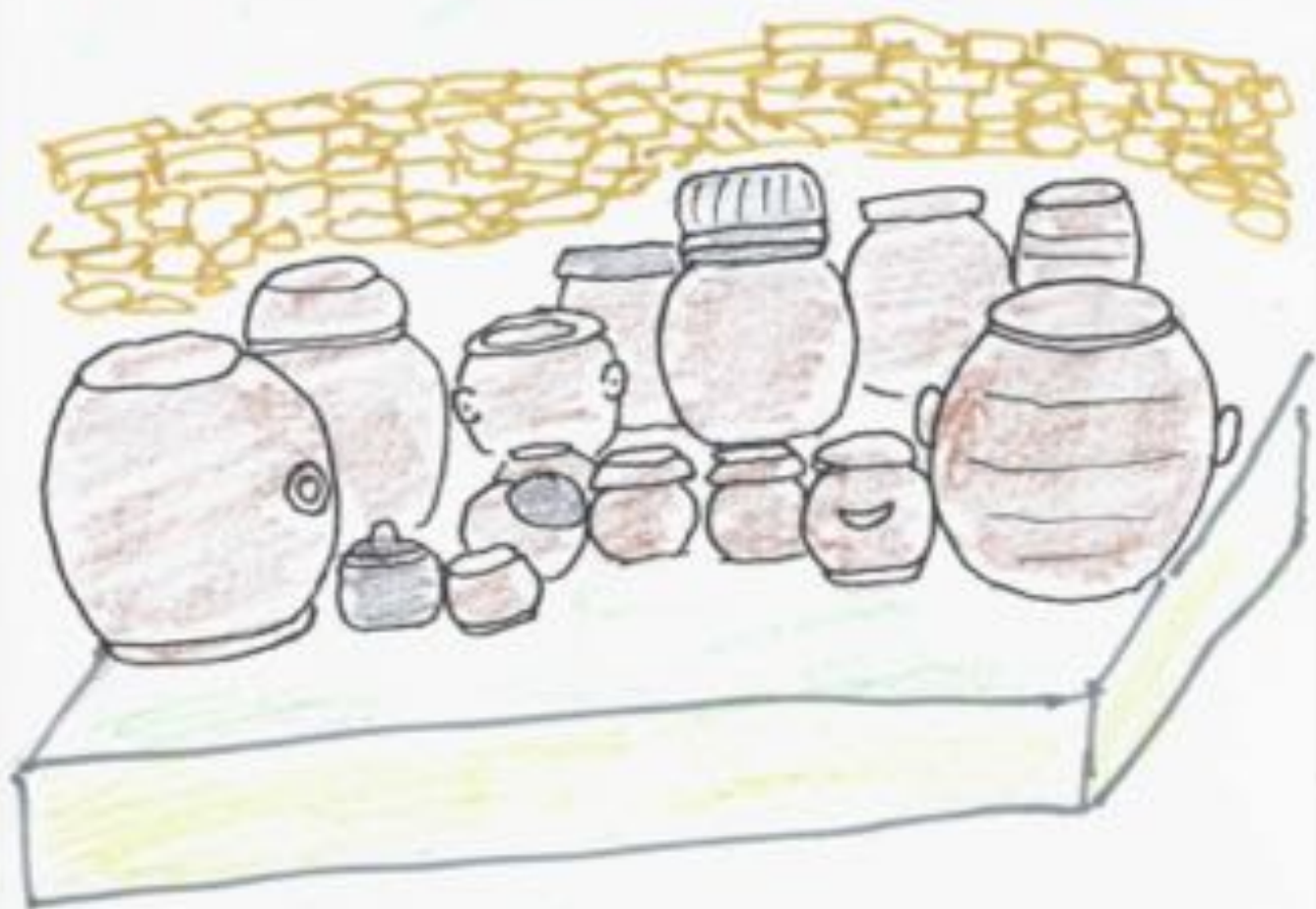
“아저씨, 아저씨. 도와주세요.
우리 소가 도망가요.”



부엌은 크고 앞문과 뒷문이 있다.
세상에 좋은 냄새는 모두 부엌에 있다.
난 부엌이 참 좋다.



아궁이에 불을 때는 아침.
마른 솔잎이 타닥거리고
장작이 빠알강게 타들어간다.
내 얼굴도 빨개졌다.



뒤꼍 장독대는 윤이 난다.

뭐가 들어 있을까,

궁금함도 잠시
친구가 나를 부른다.



광에서 말린 감귤질을 움켜 쥘다.
친구들이 너 나 할 것 없이
내게 손을 뻗는다.

나 먹을 것 남겨 두고 조금씩만 줄 거다.

공기 놀이를 한다.
일단에서 다 까먹을까 봐
조심 했지만...
망했다.



동무가 학교의 열두 가지 비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
공기 놀이에서 졌다.

열두 개를 알게 되면 귀신이 찾아온다는데

아 무 생 각 없 이

열한 개를 들었다.



할머니 옆에 누워 학교의 비밀을 하나씩
세 본다.
자꾸 열두 개다.
눈을 떠도 무섭고 감아도 무섭다.

“할머니, 자지 말고 옛날 얘기 하나 해 줘.”
“얘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.”
나는 이런 말에는 속지 않는 삼학년이다.



다락방에서 사탕을 꺼내 주시는 할머니.
딱 세 개를 주신다.
어디에 사탕이 있는지 내가 잘 봐 뒀다.



방에 아무도 없다.

베개 두 개를 밟고 다락에 올라가 사탕을 집었다.

고모 고함 소리가 들린다.

“나, 너 뭐 하는지 다 안다.”

앗, 다락 바로 아래가 부엌인 걸 깜박 했다.

그대로 뛰어내려 사탕을 장롱 밑으로 던졌다.

하하하, 증거는 없다.



정자나무 아래에서

바람과 햇볕과

흔들 사람을 만난다.

두릅나무와 복사꽃이 한창인
할머니집 마당인데
이제 할머니가 없다.

그래도
집 구석구석
할머니 냄새가
난다는 걸 나만 안다.

